

서양복식에 표현된 중세 종교복 이미지의 복고적 조형성 연구

이 호 진 · 강 립 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부교수,
전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의류학전공*

자연환경의 황폐화와 세기말적 현상인 지구 종말론, 그리고 새로운 21세기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테러와 전쟁 등의 상황은 종교와 자연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는 대중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서 이를 주제로 한 작품이 등장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패션계에도 확산되어 있고, 그 중 화려함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중세(Middle Ages)에서 영감을 찾아 패션작품으로 표출하고 있다.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와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은 수녀복의 금욕적인 실루엣에서 중세를 발견하였고 로메오 질리(Romeo Gigli)는 그의 중세풍 컬렉션 '자연주의로의 회귀' 라는 내용을 중세라는 형식을 빌어 표현하였으며, '중세의 빛'을 형상화한 파코 라반느(Paco Rabanne)의 디자인 역시 중세풍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국내 패션계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2001/2002 F/W 서울 컬렉션」에서는 자연주의와 복고풍 패션이 주종을 이루었다. 디자이너 문영자는 장식적인 고급스러움을 '도시적인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표현하였으며, 변지유는 중세의 세련된 문양을 이용해 '여유 있는 미래'의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처럼 현대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만큼 복잡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중세 유럽의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서술하였고 중세의 예술 양식과 종교복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세의 종교는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어 세계관의 형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중세의 주된 종교로는 초기에 이슬람 문화의 전파와 함께 이슬람교가 팽창하였으며, 국교로 지정된 그리스도교의 교세가 확장되었다.

서유럽 세계 및 동로마 제국과 더불어 서양 중세를 형성하였던 또 다른 세력은 아라비아의 이슬람교 문화권이었다. 이슬람교 문화는 순식간에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대제국을 형성하고 건설하여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교 문화권과 대립하였다.

이슬람교 문화는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그들 특유의 문화적 가

치를 더하여 중세 사회를 창출하였으며 경제 분야와 과학분야, 예술분야에서도 유럽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독창적이고 찬란한 유산을 창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로마정부 쌍방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 비밀집회를 가지며 그 조직을 갖추어 나가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고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1세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인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즉, 교회는 중세 유럽인들의 신앙생활만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생활을 관장하였다.

한편, 중세 예술은 종교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종교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건축과 회화에 많이 등장하였다. 어떠한 양식상의 시기보다도 중세는 미술적인 창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종교의 지배를 받았으며 동시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미술양식을 발전시켜서 종교적인 감정이 심분 반영되는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렇듯 중세의 생활은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모든 활동이 오직 신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범위는 복고적 이미지가 패션에 표현되었던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중세의 역사와 문화를 고찰하였고 패션에 관계된 석·박사 논문과 국내·외 서적과 패션전문지 등의 간행물, 사진자료, 그리고 인터넷 등의 시각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서양복식에 표현된 중세 종교복 이미지의 복고적인 조형적 특성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현대 서양복식사의 흐름을 고찰하고 앞으로 진행 될 패션경향을 인식하여 미래 복식사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